



매체포교 이정표 다시 세운다



차량에 '우리는 불자가정 스티커'를 붙이는 밸런트 김영애 씨(1995).



미륵반가사유상을 놓고 수업중인 중학생들(1996).



테마기행에 참가해 문화재 설명을 듣는 독자들(1997).

1994년 각계 축하 속 창간

현대불교신문의 창간은 6월 종로구 견지동에 한미음회관이 문을 열면서 본격화 됐다.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사시로 내걸고 '하나 더 있어 좋은 신문'을 창간 모토로 표방했다. 편집국은 8월 초 1기 기자를 채용하면서 창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현대불교의 창간은 당시 불교계 신문 환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교계 언론 사상 처음으로 자체 편집 시스템을 운영한 것과 편집부와 취재부의 이원화가 그것이다. 2번의 창간 준비회를 발간한 10월 15일 자로 창간호를 발간했다. 창간호는 본지 16면과 특집 별지 8면을 합쳐 24면 2색선으로 발행했다. 14일 오후 6시 서울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거행된 창간 리셉션에는 불교계와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 인사 2천 5백여 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1995년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 개설

창간 후 첫 해는 두 가지의 캠페인으로 열었다. 맑고향기롭게 운동 본부와 함께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펼치면서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를 주제로 지상캠페인을 펼쳤다. 이 두 캠페인은 사시인 불교의 생활화와 맥을 함께하며 기획했다. 교계 언론 사상 처음으로 법공양연을 신설해 현대 불교의 집중 보도 기능과 사찰 및 단체의 주제적인 홍보 욕구를 절충했다.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는 불자가정 스티커를 붙입니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문구와 불자를 표현한 문양이 새겨진 스티커를 자체 제작 불교계에 배포했다. 가정과 차량에 스티커 붙이기 운동이 펼쳐져 불자들의 긍지를 고양시키는데 기여 했다. 무엇보다 창간 2년째를 맞아 '부다피아'를 개설한 것은 향후 전개되는 인터넷 세상을 한 발 앞

바른신행 견인 ... 불자 긍지 대변

서 준비한 현대불교의 안목과 열정으로 평가됐다. 8월에 문을 연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는 초기 온라인 통신인 전자게시판을 개통 하는 등 불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한 사이버 세상을 맞이하는 준비를 갖추었다.

1996년 대생용 미륵반가상 보급

'새책 불자를 키웁시다'라는 캠페인으로 새해를 열었다.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1년 내내 강조하고 어린이 포교 현장을 둘러하자는 취지였다. 이 해는 부다피아의 운영이 교계에서 주목 받는 가운데 홈페이지를 제작 본격적인 사이버 세계를 불자들에게 소개하는데 앞장 선 해로 기록된다. 매체의 변화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변화하며 영상 기록물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판단으로 영상사업단을 설립했다. 책방 여시아문도 홈페이지를 개설, 온라인 서점을 구축했으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무료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이 해에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대생용 미륵반가사유상 모형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불교계와 교육계에 현대불교의 문화 마인드를 확고하게 선양했다. 일반 언론에서도 이 운동을 대서특필하는 등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한 해 동안 600여 구좌의 보급 실적을 올렸으며 반가사유상 모형을 가정에도 모시겠다는 주문도 많아 가정용으로 보급하기도 했다.

1997년 두 차례의 증면, 범포시 운동

'참회의 삶을 살자'는 주제의 캠페인을 벌였

다. 지상 캠페인과 함께 도선사에서 참회의 삼천 배 하기 행사도 개최해 1천여 명이 참회로 새로운 삶을 발원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테마 여행을 기획, 불자들이 함께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귀한 문화유산이 있는 사찰을 탐방했다. 4월에는 본지를 20면으로 증면해 독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6월부터 군부대 교도소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펼쳤다. 1구좌 1천원 범포시 운동으로 전개된 이 운동은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해 현대불교가 소외지역에 가장 많이 배당되는 신문이 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 7월에 실시한 새책불자에게 불서 보내기 운동을 통해 수천 권의 불서를 소년소녀 가장과 어린이 병회 현장에 보냈다. 청소년 국토대탐험 학교 개최, PCS 016 단말기 보급사업 등이 이해 주요 사업으로 기록됐다. 10월에는 다시 24면으로 증면 기획과 뉴스면을 확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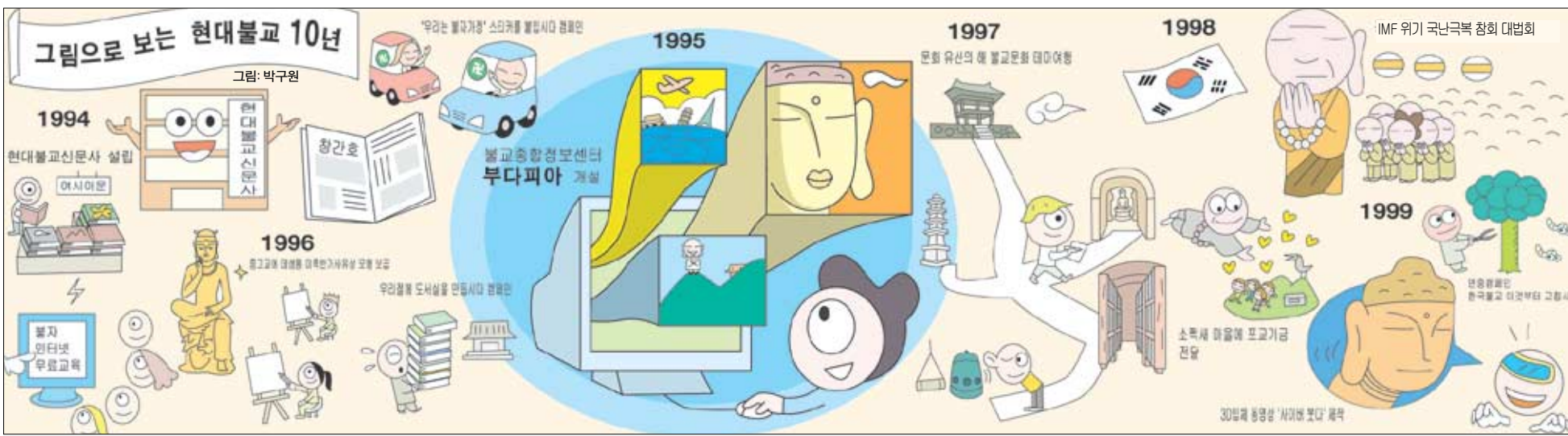
1998년 국난극복 범회 전국서 '터중'

이 해의 지상캠페인은 '작은 실천 큰 기쁨'이었다. 실천적이지 않은 깨달음은 무의미하며 불교의 가르침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완성되는 것이라 이념에 따른 기획이었고 반응은 매우 좋았다. 3회째 계속 되어 온 신행수기 공모에서 입상한 필자들이 신수회를 결성, 보다 적극적인 신행의지를 불태웠다. 3월부터는 불교문화 체험기행을 시작 11월까지 사찰과 문화 체험의 장을 펼쳐 사찰 도서관 설립 붐을 조성했다. 부다피아를 통해 현대불교에 제공된 기사

를 검색할 수 있는 기사검색 서비스를 실시했다. 특히 이 해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극에 달하는 때였다. 현대불교는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와 함께 '국난극복 범회 전국 순례 대법회'를 기획, 4월 5일 속초 신홍사에서 첫 법회를 봉행했다. 불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며 전국 8개 도시에서 연달까지 법회를 계속했다. 7월에는 첫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실시 이후 해마다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보내는 신나는 여름방학을 선물했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불교와 교육' '허공의 탐구질' 등 현대불교에 연재된 기획물들이 단행본으로 나오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1999년 20세기 고승기념예담도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집시다'라는 주제의 지상 캠페인을 실시하며 한 해를 열었다. 2월 문화관광부가 정한 '해초의 달'을 맞아 진각종과 함께 국립극장에서 국악교성곡 '해초'를 공연, 3천여 관객이 운집했다. 2월부터 12월까지 생명나눔회와 공동으로 '살을 나눔시다 생명을 나눔시다' 캠페인을 전개해 도선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차장에서 생명나눔 캠페인 법회를 실시했다. 법회는 장기기증, 화장 서약, 방생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3월부터 12월까지의 구산선문의 자취를 찾아 가는 테마기행을 실시했으며, 역시 3월부터 연달까지 '우리 집에 도사실을 만듭시다' 운동도 펼쳐 사찰 도서관 설립 붐을 조성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회 주 세 민
주 지 현 호
신도회장 심정구
합창단장 양원각형
사부대중일동

안양시 만안구 인양1동 674 삼영B/D 7층
TEL 031)444-5935-6 / FAX 031)444-5655

부처님이 광명으로 나두시어 감로병비가 내리고 있는곳

동해사

감로병비의 신비스러움을 지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비기간: 양력 10월 12일 ~ 11월 20일까지

새가지 소원증 한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는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셔서 감로병비도 맞으시고 기도토배 소원이 이루어 보세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동해사 주지 혜명 합장
033-672-2900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원적외선 사찰 난방

원적외선 월빙 난방으로 구도에 정진하세요!

특징

1. 원적외선 복사열로 바닥과 내부의 공기까지도 보온의 따뜻함을 드립니다.
2. 바닥이나 벽면의 기초시공을 손대지 않고 바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3. 기동성 대비 50% 가까이 난방비가 저렴합니다.
4. 원적외선 난방으로 공기가 탁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5. 전지판이 없고 부분난방이 가능하며, 원선과 화재위험이 없습니다.
6. 유지관리 비용과 A/S도 거의 불필요한 제품입니다.
7. 환경 친화적 소재이며 반영구적 수명이 지체대 난방 시스템입니다.
8. 불시 건축, 증축, 개축시 난방공사 부담 현영됩니다.

설치장소
사찰, 포교원, 수련원, 기도원, 강당, 문화재관리실, 병력관, 랜선, 오디오실, 아트디베런스, 기숙사, 고시원, 활동방, 점침방,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음식점, 차료 및 인원실, 콘테이너하우스, 숙식실, 옥탑방, 전원주택...

시공처
통도사 백운암(법당, 요사채), 변산반도 월명암(법당), 정선 불암사(요사채), 대구 청계사(요사채), 서울시 문화재 2호 봉황각(수련원, 유교문화원, 삼성이마트, 대림이마트, 롯데캐슬 등 대림이마트의 배런), 성산동원, 동경신주쿠 오디오스텔, 다수 기숙사, 밀양 정승골 펜션타운, 신채소 호텔, 정선 이오리지식 품위서 등 다수

고정월한
MBC-TV 라브하우스,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앙일보와 KTDOM의 베스트 추천업체

월빙코리아 http://www.wbkor.co.kr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렵센터 33층 3304호 H-P 011-719-9716
전화 02)538-8489, 551-3010, 2661-6711

법문, 불경을 녹음해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다른 이들에게 설하는 공덕이 엄청나게 크다고 10여번이나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리하라고" 간곡히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보귀의하옵고

세상에 널리알리시는 부처님의 은덕을 감남표묘원 (원장스님, 성렬) 형편업해 (주)서광아이엔티에서는 귀 사찰의 본스님 및 주지스님의 불경(특경, 범포)을 녹음 및 테이프 제작해 드립니다.

고가의 녹음비용이 드는 스튜디오 녹음을 출장방문하여 녹음을 하기때문에 각 사찰의 주지스님께서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출력하시는 불편을 줄이시게 되고 또한 고성능의 녹음기로 녹음을 받아 디지털 음질 편집작업을 하기때문에 편리하게 녹음을 마칠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된 작업은 테이프 및 CD로 제작해드리게 되며 신도님들에 배포함으로써 각 사찰에 성황속에서의 불교를 쉽게 접하게 해드릴수 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귀사찰에 부처님의 은덕이 널리 퍼지길 기원하옵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상담으로 금감한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 주요업무: 사찰음표 이미지제작, 성금모금 ARS, 각종 녹음

(주)서광아이엔티
본사: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3가 43-1 원광빌딩
Tel: 02-711-2922 Fax: 02-711-2924
24시간 상담전화: 0505-336-7555
문명계화번호: 국민은행 015-25-0055-534
(주)서광아이엔티

매체포교 이정표 다시 세운다

■ 매년 지상캠페인 전개
■ 붓다뉴스 영향력 확산

20세기를 마감하면서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 온 큰스님 16분을 한국조계종교사에 의뢰 기념에 달로 제작 보급했다. 만공, 한암, 용성, 만해, 경봉, 청담, 고암, 성철, 영호, 동산, 금오, 효봉, 목담, 탄허, 자운, 월산 스님의 진영과 가르침의 핵심을 담은 금장 메달은 불자들이 늘 가까운 곳에서 고승의 체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웹 서비스는 물론 각 단체의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해 오던 부다피아가 3D 입체 동영상 '사이버 붓다'를 제작해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 발표함으로 현대불교가 불교계 IT 분야를 선도해 갈 역량이 충분함을 보여줬다.

1월에 교계 최초로 문을 연 불교문화 상품 전문 쇼핑몰 마하몰이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신문사로부터 인터넷 우수 사이버 몰로 선정됐다.

2000년 붓다뉴스 속보 체제 가동

새로운 세기를 여는 해를 맞아 벽두에 시작한 캠페인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로 자아성찰을 통한 이웃 사랑과 바른 삶의 서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이었다. 창간 이후 5년간 발행된 현대불교를 CD로 묶은 전자 합본집을 1월 1일자로 선보였다. 불교계 첫 전자 합본집이었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불교계 언론의 방향이 인터넷으로 변하는 시발점을 현대불교가 주도했다. 바로 불교뉴스 전문 사이트 붓다뉴스를 오픈한 것. 붓다뉴스는 실시간 뉴스 서비스를 지향하며 사이버 일간지로 자리를 잡아 왔다. 2003년 대대적인 개편과 기자커뮤니티 신설, 실시간 보

도를 지향하는 속보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 등으로 기능이 확장되면서 2004년 10월 현재는 가장 영향력을 갖는 매체로 인정되고 있다.

2001년 문화·복지사업 추진

동국역경원이 37년 만에 '한글대장경'을 완역하는 해였다. 이와관련 현대불교는 동국역경원과 연초부터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면으로는 한글대장경에 수록된 경전을 매주 해설했으며 한글대장경과 장경각 보급사업을 전개했다. 이 사업은 2년간 계속됐다. 경찰청과 함께 한 '도난문화재를 찾읍시다' 캠페인을 통해 성보 문화재의 도난 실태와 저조한 회수율, 도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보도했다.

8월부터는 불교계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부다피아 하나 카드' 사업을 실시해 불교복지시설에 기금을 기탁했다. 한편 이 해에 부다피아가 9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 선정됐다.

지역문화의 발전이 새로운 사회 과제로 대두되면 이 해에 현대불교는 지역불교문화행사를 기획 3월부터 매월 특색있는 문화가 살아 있는 지역을 독자들과 함께 탐방했다. 10월에는 중국 하남성과 산시성의 불교유적 순례 행사를 개최했다.

2002년 교계 첫 2색선 지면 선보여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어린이 영어캠프(1월

■ IT·문화·복지사업 주도
■ 호외·부록발간 전법에 역점

14일~17일)를 실시하며 한 해의 각종 사업이 시동을 걸었다. 이 해에는 현대불교가 주축이 되어 두 단계가 발족했다. 현대불교가 주축이 되어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과 단체들이 4월부터 불교정보화실태조사를 벌였다. 불교계서는 최초로 실시한 전수도사로 5200개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불교정보화의 기초자료로 보고서 발간했다. 이를 계기로 11월 불교정보화현황을 결성했다. 10월 17일 서울 가나 아트에서 열린 근현대 불교 미술전시회 '아름다움과 깨달음의 전'은 불교문화사업기획단이 개최한 의미 깊은 전시회였다. 불교문화산업 기획단의 설립에 현대불교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 전시회는 경주와 속초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2004년 선원장 법회로 수행 열기 견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으로 한 해를 열었다. 나눔의 ARS 전화를 개통하고 매주 1개년 전체를 향해 나눔의 소식들을 집중 보도 하고 있다. 각 종단과 단체는 물론 불자들의 개별적인 동참까지를 아우르는 나눔의 손잡기 운동은 불교계가 펼쳐온 나눔 운동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창간 10주년의 해를 맞으며 의욕적인 법회를 기획했다. 조계사와 공동으로 주최한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대법회'다. 2월 15일 고우 스님의 법문 시작으로 5월 9일 설경스님까지 매주 조계사 대웅전에 3천여 명의 불자가 운집한 가운데 선의 정수를 배우고 느끼는 자리를 펼쳤다. 이 법회와 관련된 현대불교는 타블로이드 판형의 16쪽짜리 부록을 발행하기도 했으며 법문은 CD와 테입으로 출시했다. 1호부터 최근호까지의 현대불교를 지면 그대로 볼 수 있는 PDF서비스도 9월부터 실시했다.

그간 국내에서만 진행되던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는 해외에서도 영어 연수와 역사탐방을 주제로 21일만 열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3년 32면 체제 정착 호외 발행도

신년은 증편으로 시작했다. 16면과 16면 2색선으로 지면을 정착시켰다. 붓다뉴스의 개편을 통한 실시간 보도 정착으로 보도의 유연성이 확대됐으며 쌍방향커뮤니케이션의 실현으로 인한 독

자들의 성향 분석도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2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호외를 긴급제작 당일 저녁 수도권일대에 배포했다.

북한 만수대장작사가 제작한 근세 고승들의 자수진영을 전시해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불교정보화협의회가 진행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컴퓨터교육을 주도 했으며 불화와 캐리커의 만남전도 개최 했다.

대불련 총동문회와 함께 그리운 동문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전국 대불련 동문들에게 현대불교의 인지도를 높였다. 12월 31일 인도 녹야원에 처음으로 한국불상을 봉안하는 쾌거도 현대불교의 세계적인 마인드가 이뤄 낸 불사로 기록됐다.



IMF때 속초 신봉사에서 열린 국난극복 전국순회대법회(1998).



'부다피아캠프'를 즐기는 새싹불자들(1998).



조계사에서 열린 전국 선원장초청 대법회(2004).

세계 제일 풍기인삼 그 효과를 느껴보십시오!!!

△ 홍삼 상식

학명은 판나스 진생(Panax ginseng)은 만병통치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인삼의 효능이 최고조에 이르는 인삼만을 선별하여 곱갠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숙성합니다.

즉 인삼 곱질의 바로 인삼에 많은 양상 조직이 존재 하는데 홍삼을 이와 같이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표피 부분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포닌이 축적되어 효능이 우수합니다.

이런 홍삼을 엑기스 추출과정에 90℃ 이상 고열로 추출하면 쓴맛과 겉을 씹을 때나 홍삼의 고유한 사포닌 성분과 향기가 많이 소멸되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특수한 제조 방법으로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 발효시켜 만든 제품으로 홍삼 고유의 향기와 색깔을 유지하며 홍삼에 은은한 맛과 달라지는 건강을 직접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명품

명품 홍삼엑스는 소백산맥의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생산되는 풍기홍삼과 상향버섯을 주원료로 7일간 숙성 발효과정을 거쳐 홍삼성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타 어느지 제품보다 우수한 홍삼성분을 느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 풍기정품홍삼액 '명품' - 내용량 100g × 60포

* 당도가 있는 분을 위하여 꿀을 첨가하지 않은 무과당도 있습니다.

풍기정품 홍삼액 골드

인삼 재배에서 가공 상품 유통까지 산지에서 직접 운영하므로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 풍기정품홍삼액 '골드' - 내용량 100g × 60포

▶ 풍기정품홍삼액 '골드' - 내용량 100g × 30포

저희 풍기홍삼 정품 유통상사는 양성을 숙이 않는 최상의 정품만을 생산합니다.

품목 홍삼음료(엑기스), 홍삼원액, 홍삼, 인삼, 절편삼, 인삼사탕, 인삼제리

풍기 홍삼 정품 유통 상사

공 장 : 054)636-2174 / 구입처 : 016-815-2174

현대불교신문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들에게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2005 원일 불교카렌다 출시!!!

카렌다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 02)2277-0304
FAX: 02)2268-6732
www.wonil-c.co.kr